



성인 남자 키 높이로 제주 현무암을 하나하나 쌓은 뒤 붉은 돌인 제주송이를 올려 만든 돌하르방 미로 전경. 세계 최장 길이며, 지난 8월에는 SBS에능프로 '런닝맨'이 촬영돼 화제가 되기도 했다.



① 바람미로의 108광장
②미로 박물관 상설 전시
③ 인도네시아 자바섬 보로부두르 종을 본떠 만든 성취의 종

인생의 미로, 팔정도도 헤쳐나가자

제주도 명소로 자리한 미로공원 메이즈랜드

“갈림길에서 바른 길을 찾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
 “정념이 필요하지 않아요. 차분히 마음을 가라앉혀보세요. 보이지 않는 것들이 보입니다.”
 삶을 살며 수없이 부딪히는 선택의 순간과 그 이후에 오는 수많은 번뇌에 해답을 제시한 부처님. 그 가르침을 미로로 표현한 곳이 있어 화제다. 바로 세계 최대 미로테마파크 제주 메이즈랜드다. 독특한 불자인 이동한 메이즈랜드 대표(62)가 불심으로 하나하나 만들어 낸 곳, 메이즈랜드를 11월 25일 찾았다.

한국의 대표적 관광지인 제주도에는 사설관광지가 많다. 다양한 소재와 주제를 한 박물관이며 테마파크 등이 최근 들어 많이 들어서고 있다. 이중 제주시 구좌읍 평대리에 2011년 4월 개장한 메이즈랜드는 불교 철학을 바탕으로 돌, 바람, 여자가 많다는 삼다도(三多島)를 표현해 인기를 끌고 있다. 지난 8월에는 SBS 예능프로인 '런닝맨'에 방영돼 화제가 되기도 했다.
 메이즈랜드에는 이동한 대표의 불교 철학이 녹아 있다. 2세 때 소아마비를 겪고 3세 때 아버지를 여읜 이동한 대표에게 하루 하루의 삶은 한지 앞도 모르는 생존에 대한 도전이었다.

이동한 대표는 “그야말로 미로인생이었다”며 “인생의 힘든 고비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큰 힘이 됐다”고 말했다.

이 대표가 조성한 메이즈랜드의 세 가지 미로는 각각 36개의 갈림길이 있다. 모두 합하면 108개의 갈림길로 108번뇌를 상징한다.

가장 먼저 조성된 '바람미로'는 원형으로 바람을 표현했다. 서양축박나무로 구성된 울타리는 성인 남자의 목까지 차는 높이다. 바람미로의 원형 길은 총 8개로 팔정도를 상징한다. 바람이 상징하는 고난이 닦기 더러울 불법에 따라 정법 수행을 한다면 극복할 수 있다는 의미다. 이 바람미로의 중앙에는 광장이 자리하고 있는데 '108광장'으로 이름 붙여져 있다. 여기에는 기도하는 여인의 손 모양을 상징하는 '나눔의 조각상'이 가운데 자리하고 있다.

이 대표는 “조각상은 선업을 짓는 것을 의미한다”며 “젊었을 때, 또는 살아있을 때의 모든 것들은 죽으면 지수화풍으로 없어지지만 유일하게 남는 것이 바로 선업을 배운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108번뇌를 끊고 성불로 가는 협정이 바로 자비로운 마음에서 우러나는 나눔”이라고 강조했다.

나눔의 마음으로 아집을 내려놓고 바람미로를 헤치고 나면 여자 미로가 이어진다. 물질을 마치고 돌아오는 해녀의 모습을 한 이 미로에는 랠리나 나무와 동백나무가 식재돼 있다. 마치 부처님의 최후 선정을 방해한 마왕과순의 세 딸과 같이 동백꽃이 만개해 눈길을 사로잡는다. 붉은 동백꽃을

보다보면 길을 잃기 십상이다.
 바람미로와 여자미로를 합치면 제주도 바다에서 나는 소리모양이 된다. 바람미로는 소리의 몸통부분을, 해녀미로는 소리의 뚜껑부분을 상징한다.

두 미로를 빠져나오면 제주지역의 역사를 살필 수 있는 돌하르방이 펼쳐진다. 제주도에 있는 지역마다 조금씩 다른 돌하르방이 존재한다. 이어진 돌하르방 미로는 말 그대로 돌담으로 된 미로 길이다. 성인 남자의 키 높이로 제주 현무암을 하나하나 쌓

108번뇌 상징하는 108 갈림길 등

공원 곳곳에 불교철학 녹아 있어

“바른 길보다 바른 길 중요” 메세지

은 뒤 위에는 붉은 돌인 제주 송이를 올렸다. 이 대표는 이 미로를 만들기 위해 약 10년 동안 돌을 모았다고 한다.

미로에서는 남녀노소 구분이 없다. 길을 찾기 위해 뛰어다니는 것과 천천히 걷는 것 모두 해매기는 마찬가지기 때문이다. 옆을 빠르게 뛰어서 지나갔던 한 아이가 고개를 가우뚱하며 다시 뛰어온다.

미로를 빠져나가는 길을 찾기 위한 방법을 묻자 이동한 대표는 차분히 마음을 먼저 가라앉히라고 조언했다. 차분히 마음을 가라앉히자 사람들이 많이 걸었던 길의 발자국이 눈에 들어왔다.

이철행 전무이사는 “출입구가 남쪽에 인듯 보여 본능적으로 빨리가기 위해 남쪽으로 향하는데 오히려 해매는 길”이라며 “바른 길인지 알고 욕심을 내면 오히려 더 해매는 이치”라고 말했다.

미로 찾기가 끝나면 하늘길과 전망대가 나온다. 거기에 올라서면 그동안 해매오던 모든 미로들이 눈앞에 펼쳐진다. 마치 깨달음의 경지에 올라선 이가 세속에 아담바등대는 중생을 보듯 미로 속에서 해매는 사람들을 보는 듯하다. 전망대에서 메이즈랜드 밖으로 눈을 돌리자 미로 속에서는 보지 못했던 주변 으뜸과 풍광이 병풍처럼 펼쳐진다.

전망대 한편에는 세계 3대 불교성지인 인도네시아 자바섬 보로부두르 불교사원의 종을 본떠 만든 성취의 종이 있다. 불교에서 종소리는 무명을 없애 우주의 모든 중생을 제도할 뿐만 아니라 지옥에 빠진 중생들도 구제한다는 상징적인 의미를 지니고 있다. 성취의 종에 손을 대자 경주 예밀레 종 소리가 은은히 울려 퍼진다. 그동안 미로에서 해매며 느꼈던 모든 번뇌를 저 멀리 날려버리는 듯하다.

서울에서 온 김경희(36)씨는 “미로를 헤매다 막막해질 때 마음을 가라앉히고 길을 찾았다”며 “살면서 고난에 부딪혔을 때 급하게 생각하기보다 평정심을 갖고 사는 습관을 가져야겠다”며 만족감을 표했다.

제주·글=노덕현 기자 nodu@hyunbul.com
 사진=박재원 기자 wanhollo@hyunbul.com

주위 돌보는 나눔정신으로 공원 조성

이동한 메이즈랜드 대표



이다. 독실한 불자인 이 대표는 불편한 몸에도 하루도 빠지지 않고 조석에 불을 올리고 있다. 매일 오전 6시만 집안에 마련된 불

“소외된 이웃과 함께하는 공원으로 만들어 가겠습니다.”

2세 때 소아마비를 앓은 이동한 대표는 현재 자신과 같은 처지의 장애인을 위한 자비 나눔의 삶을 평생 동안 펼쳐 오고 있다.

어려서 ‘절뚝발이’라고 놀림 받았던 이 대표는 그로 인해 더욱 더 자신보다 어려운 이웃에게 기쁨을 전해주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현재도 보조기와 지팡이를 의지해야 걸을 수 있는 이 대표는 25년간 장애인 복지사업에도 헌신해 ‘제주도 장애인 대표’로 활동한다.

불편한 몸으로 어떻게 살아갈까 고민하던 이 대표는 어려서부터 자립에 대한 의지를 키웠다. 뒤늦게 들어간 고등학교에서 제주도 1호 계량기사 자격을 취득하고 수도계량기, 택시미터기 교체 일을 시작했다. 이어 조경사업과 양묘사업 등에 뛰어들어 1985년 제주공방 조경 사업을 담당하기도 했다.

이렇게 모은 돈으로 1987년 제주에서 처음으로 ‘춘강(春江)’이라는 사회복지 법인을 설립했다. ‘춘강’은 이 대표가 어릴 적 절에서 받은 법명에서 따온 것이다.

이 대표는 제주도 장애인종합복지관을 비롯해 장애인 근로센터, 서귀포시 장애인종합복지관, 직업재활시설 어울림터, 재활의료시설인 춘강의원 등을 세워 운영하며 부처님 가르침을 실천 중

다. 제주도장애인종합복지관 내 법당인 춘강정사에서 직원들과 함께 예불을 올리며 무사안녕을 기원한다. 또 10년 동안 제주도 내 무연고 분묘의 영가를 위한 천도제도 봉행하고 있다.

메이즈랜드도 이러한 마음으로 만들었다. 관광시설이지만 장애인과 노인, 다문화가정 가족 등 소외계층을 위해 일자리를 배정하고 있으며 장애인들과 다문화가정 가족, 스님과 성직자들에게는 무료 이용의 혜택을 주고 있다.

이동한 대표는 이 같은 공로로 1997년 정부로부터 국민포장을 수상했고, 2000년에는 제주시민상, 2001년에는 국민훈장 석류장을 받았다. 최근 이 대표는 ‘2012 호암 사회봉사상’을 수상해 법인을 설립했다. ‘춘강’은 이 대표가 어릴 적 절에서 받은 법명에서 따온 것이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펼치는 것은 다양하지만 그 근본은 같다고 생각합니다. 주위를 돌보고 나보다 힘든 이들을 위하는 마음이 바로 부처님의 마음입니다.”

화합불교의 일불제자 구현

(사) 호국불교조계종 가사불사 및 점안법회

가사를 조성하여 시주하면 천 가지 재앙이 눈 녹듯 사라지고 만 가지 복이 구름처럼 일어난다.
 이런 연유로 가사불사는 으뜸가는 공덕이므로 (각 사암)으로 가사불사에 많은 동참바랍니다. <대장경 수지함>

<p>중 정 운송 (청운사 055-375-0108) 중앙원로원장 대웅 (봉주암 051-895-6013) 중앙원로의원 해원 (봉광사) 무진 (웅수암 011-864-3369) 청수, 일파 중앙총회사무처장 옹현 (극락정사 010-2531-1961) 중앙총회의원 수경 (백련암), 범주 (몽불사) 진우, 진여, 진설, 혜덕 고 문 허중범 변호사 (011-837-1144) 사무총장 박문비 (010-4566-4504) 중앙포교단장 덕인 박근호 포교단총무 법광 (무량사 010-9316-4438)</p>	<p>중앙총회의장 일봉 (관음사 011-508-3100) 포교원장 운암 (문황사 055-573-1745) 교육원장 법기 (백림사 016-748-0048) 호계원장 법정 (법정사 011-567-2626) 호법원장 법산 중앙전통불교문화원장 무향 소현 (010-7757-5078) 중앙선거관리원장 관우 (약사사 010-8859-5312) (社)護國佛敎曹溪宗 總務院長 유심 성도 공동봉행위원장 운암 공동봉행위원장 혜명 범우</p>	<p>비구니회회장 혜명 범우 (백광사 051-804-3806) 비구니회총무 범중 (법전사 011-9509-1560) 총무부장 도일 정무 (청운암 010-4007-0057) 감찰부장 서암 (약수사 010-6668-2017) 규정부장 법승 (051-516-4494) 재무부장 모향 반아라마 (010-8620-4303) 문화부장 청오 (홍주암 011-514-6310) 감사부장 청타 (관음정사 018-403-1022)</p>	<p>장소: 부산역 앞 건너편 호국불교조계종 총무원 관음정사 (051-468-5657) 일시: 불기 2556년 12월 8일 (음 10월 25일) 토요일 오전 10시 30분</p>
--	---	---	--

전국 각 교구 총무원장

부산교구원장 (총무원 직할)
서울교구원장 법안 (광복사 02-306-7988)
경남교구원장 운암 (문황사 017-551-5143)
천안교구원장 법산 (010-3011-0853)
대구교구원장 보현 (약사사 016-9884-0860)
사천교구원장 무무 현수 (연지암 010-4587-2163)
불무도교구원장 수연 범승 (천황사 010-8988-9672)
경주교구원장 무진 (웅수암 011-864-3369)
포항교구원장 해광 (천황사 010-4148-2402)

입 증 업 체

신라불교미술관

- 불교문화재 기능보유자 제 12-01-01호
- 2010년 한국을 빛낸 자랑스런 한국인대상 미술부문 수상
- 불상, 명화, 개금, 벽화, 단청
- 조성장소: 부산진구 초읍동 (무상 010-3557-6250)

수봉전자 (불교음향기기특수제작)

- 선거음향, cctv, 노래방, 아외앰프
- http://www.kukjeav.com
- 장소: 부산 진구 부전동 29번지(부산전자종합시장 1F 7호문)
- 수봉 010-3832-8855

불교승복 원복사

- 가사, 장삼, 두루마기, 손누비, 모시끼끼, 승복일절
- http://www.wonboksa.co.kr
- 장소: 부산 동래구 온천3동 1276(구, 고속터미널 앞 미남로 약국 2층)
- 금봉 010-3572-4400

* 종지 중종 및 이념은 홈페이지 참조 (http://bbnr.or.kr)